

양천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허길동

글쓴이: 둘째 아들 허이순

날짜: 2024년 5월 1일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나의 아버님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1999년 5월 13일 향년 79세(만 78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님의 25주기 기일이 돌아옵니다. 나는 아버님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내 자식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나의 후손들은 나의 아버님이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셨는지, 자식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또 행복한 순간은 언제 이셨는지 등에 대해 짚막하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물론, 이 기록 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 어머니와 다정히 여행을 다니셨던 모습, 가족들과 함께 함박 웃음을 짓던 모습 등 여러 사진을 이번 전자족보에 함께 남기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허길동은 조선이 일제 강점기에 속에 있던 1921년 5월 10일, 충청북도 부여에서 3남 4녀 중 첫째이자 장남으로 그리고 조그만 농사를 짓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나 당시는 일본의 통치를 받는 시절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며 양반이라는 신분이 서서히 없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아버님은 태어나면서 글 공부와 농사를 가족들과 함께 병행하면서 자랐습니다. 할아버님은 아버님이 첫째 아들이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키려 노력하셨지만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형편에, 아버님은 지금으로 치면 늦은 나이인 10살에 보통학교(현재의 초등학교)에 입학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할아버님의 큰 사랑에 부응하여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공주의 양천중학교 선생님을 거쳐, 부여의 양천고등학교에서 20여년 간 국어선생님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 내셨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대학에 입학한 후, 첫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집에 내려와 쉬고 있던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마친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국어 선생님이 되었는지 아니?” 나는 아버님의 그러한 질문이 좀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아버님께서 왜 국어 선생님이 되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국어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의 대답은 내 가슴을 크게 울렸으며, 그 말씀 하나로 내 인생 또한 큰 전환을 맞이하여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식들과 후손들이 여기 적은 내용을

읽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귀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당시의 아버님 말씀을 간략히 적습니다.

아버님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국어(당시는 조선어)와 일본어를 함께 공부하면서 자라셨습니다. 나라를 잃었기에 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배웠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은 더욱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일본의 침략 전쟁은 조선의 건장한 많은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고가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곳에 노예처럼 동원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이렇게 징용이 될 뻔 하셨으나, 당시 병이 있었던 관계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첫째 아들이었기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를 시키려 했던 할아버님, 아버님은 늦은 나이에 보통학교(현재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농사를 도우면서 천자문과 소학 등을 징조 할아버님으로부터 배웠고, 일본의 각종 횡포가 더욱 심해지던, 1941년 선생님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깨우쳐야만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신념 하에 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하고 공주고등보통학교(지금의 고등학교 수준)에 다시 입학했으나, 병으로 인해 휴학을 하던 중,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 후, 사회는 안정되지 못했지만, 1948년 공주사범대학이 개교를 하자, 아버님은 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입학했고, 졸업 후, 국어선생님으로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저녁에는 야학을 열어서 한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방학에는 고향에 내려와 학교를 다니지 못한 동네 청년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님은 더이상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인 1980년까지 국어 선생님으로서 한글을 보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맹을 깨치는 데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앞장서셨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어도, 변변한 살림살이가 없어도, 항상 올곧게 사셨던 아버님은 독서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인지 일년에 한 번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1박 2일 여행을 꼭 하셨습니다. 이 여행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끔 1박 2일이 아닌 일주일 정도의 해외 여행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는 자식과 손자들이 함께 했고, 먼 곳이 아닌 동남아가 주된 여행지였습니다.

이런 여행 때, 자식과 손자들에게 보여주신 아버님의 커다란 미소와 행복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소리도 좋지 않은 오래된 레코드 판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서 눈을 지긋이 감으신 채 명상을 하시던 아버님의 모습, 저희 자식들에게는 항상 자애롭고, 다정다감한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일년, 삼백육십오일 항상 미소만 짓던 아버님은 아니셨습니다. 자식들의 예절교육을 제일 중요시 했던 아버님은, 저희들이 자라면서 예의에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할 경우,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분으로 얼굴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아버님의 모습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또한 서럽고, 슬플 때가 많았지만, 누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자식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즐겨 읽으셨던 내용은 수필과 시입니다. 국어선생님으로서 함축된 의미, 아름다운 단어로 이루어진 시가 매력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경제력 세계 10 위 안에 들어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바로 나의 아버님과 같은 분들의 열정과 구슬 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낮과 밤 구분없이, 비가오나 눈이 오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던 아버님, 아버님의 이런 열정과 근면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당시 저에게 들려 주셨던 아버님이 왜 국어 선생님이 되었는지에 대한 아버님의 애국애족 정신은 저로 하여금 제가 입학했던 공주사범대학을 떠나 육군사관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아버님과 같이 항상 애국애족 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저를 만들었으며, 저는 이러한 생활 덕분에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여 지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곧고 바른 성정, 그리고 나와 형제들이 자랄 때, 항상 귀가 따갑도록 하셨던 말씀,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남에게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행동보다 말을 더 조심해라. 한 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

지금도 아버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님의 25 주기 기일이 됩니다. 아버님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아버님과 어머니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니, 감사합니다.